

2023.05.17(수)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5-17 오전 4:09

수정한 날짜: 2023-05-17 오전 4:37

2023.05.17(수) 증권사리포트

JYP Ent.

장점이 그대로 드러난 정석 같은 실적

[\[출처\] 키움증권 이남수 애널리스트](#)

1분기 영업이익 420억원(yoy +119%) 서프라이즈

1분기는 매출액 1,180억원(yoy +74%), 영업이익 420억원(yoy +119%, OPM 35.6%)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앨범/음원, 콘서트/MD, IP 라이선싱 등 모든 부문의 매출 성장이 발생했다. 제한적 콘텐츠 제작비 투입에도 매출 성장이 발생했기에 GPM 51%, OPM 35.6%으로 장점이 그대로 드러난 실적 개선이다.

미국 기여도가 높아지며 글로벌 팬덤이 성장해 음반/음원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트와이스 180만장, 엔믹스 68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글로벌 음원의 성장이 나타났다. JYP360의 분기 매출이 안착과 동시에 성장을 보이고 있는 MD부문은 월드투어로 한 단계 레벨업을 이끌어 냈다. MD의 성장은 매출 볼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활동 비수기에도 꾸준한 실적을 발생시킬 포인트이다. 성장성에 안정성이 더해진다.

2분기도 기대, 하반기는 글로벌 데뷔까지

1분기 실적 레벨업 트렌드는 2분기에도 유효하다. 스트레이키즈의 정규앨범이 6월 출시 예정이고, 트와이스 월드투어와 엔믹스 쇼케이스가 개최된다. 지난해 빌보드 HOT200에서 두 차례 1위를 달성한 스키즈는 22년 4월 시작한 월드투어를 1년여 만인 23년 4월 마쳤다. 6월 발매될 신보는 지난 앨범 초동 218만장에서 유의미한 성장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A2K 콘텐츠 런칭으로 신인 라인업의 확대가 본격화 된다. A2K 콘텐츠 릴리스를 시작으로 LOUD, Project C가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NiziU BOY 버전까지 총 4팀의 현지화 데뷔팀을 보유하게 된다. 오디션 프로그램 데뷔 아티스트의 특성은 빠른 팬덤 성장에 있다. 현지 런칭이기에 성장 후 글로벌 공략이라는 프로세스도 스킵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0원으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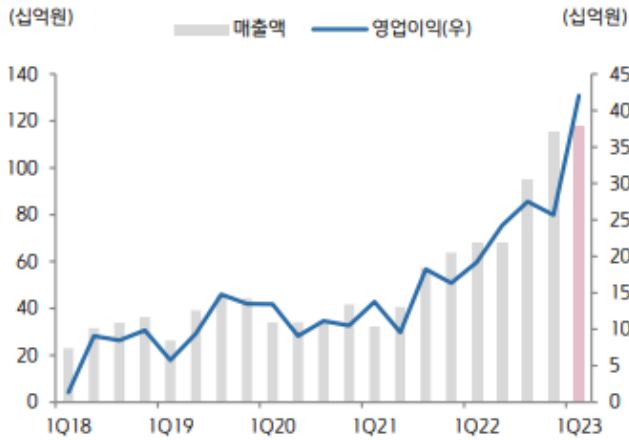
스키즈, 트와이스 등 기존 아티스트와 신인 4팀의 기여로 2023년 매출액 4,973억원(yoy +44%), 영업이익 1,585억원(yoy +64%, OPM 31.9%)을 전망한다. 멀티 프로듀싱 체계에 의해 확보되는 효율적 콘텐츠 투자도 수익성 개선의 일등 공신이다. 매출 성장에 마진 개선도 동시에 나타났다.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동시에 부각된다. 2023E 지배주주순이익 EPS에 Target P/E 35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120,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BUY는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93.9	345.9	497.3	569.6
영업이익	57.9	96.6	158.2	169.8
EBITDA	62.6	102.7	164.8	176.9
세전이익	85.9	94.1	166.3	184.7
순이익	67.5	67.5	123.4	131.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7.5	67.5	123.3	131.0
EPS(원)	1,900	1,901	3,474	3,690
증감률(% YoY)	128.4	0.0	82.7	6.2
PER(배)	26.7	35.7	27.5	25.9
PBR(배)	7.30	8.01	8.31	6.48
EV/EBITDA(배)	27.2	22.0	19.1	17.2
영업이익률(%)	29.9	27.9	31.8	29.8
ROE(%)	31.4	24.7	34.8	28.1
순차입금비율(%)	-41.3	-51.0	-61.1	-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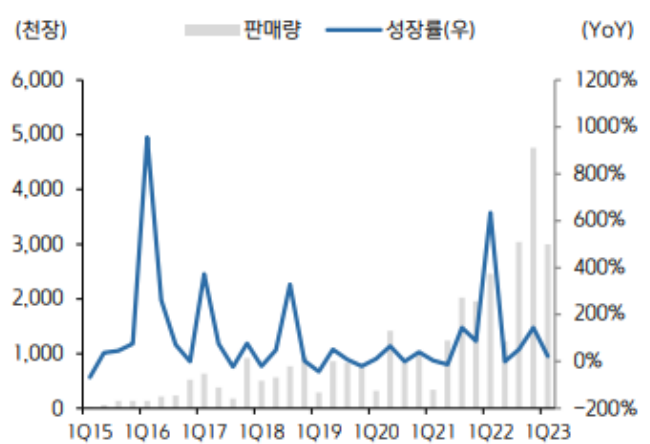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JYP Ent,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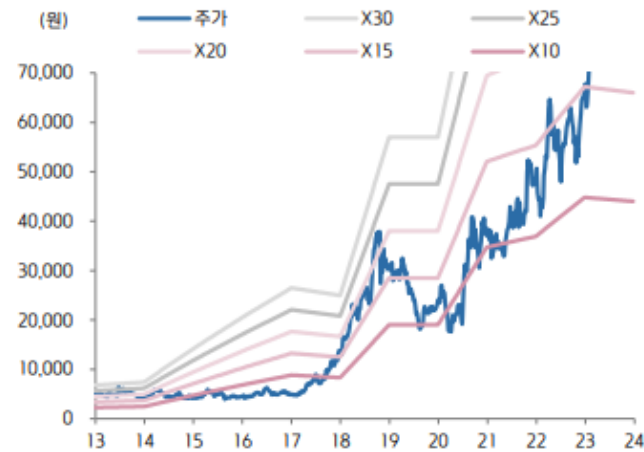
자료: JYP En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JYP Ent, 분기별 앨범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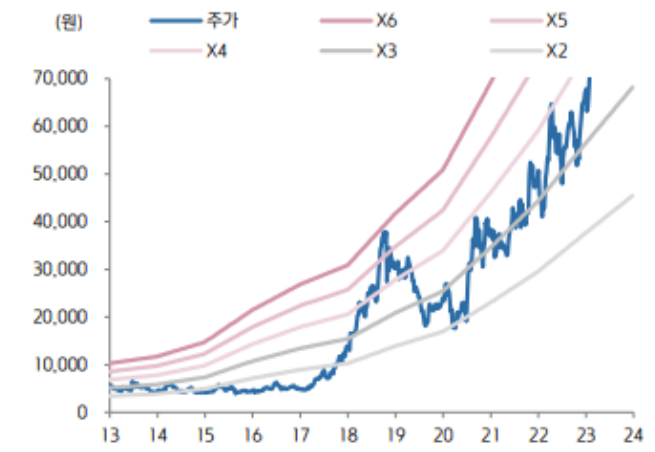
자료: JYP En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2M Forward PER Band



자료: 에프앤가이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2M Forward PBR Band



자료: 에프앤가이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씨에스베어링
실적 개선 시작

[\[출처\] DS투자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

1분기 흑자전환, 2분기는 더 좋을 전망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49억원(+67.0% YoY)과 영업이익 7억원(흑자전환)을 시현했다. 현재 GE향 매출비중이 90%에 달해 GE사의 분기별 수주와 실적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행히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GE도 미국을 중심으로 터빈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씨에스베어링도 GE향으로의 물량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대폭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했다.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는 외형과 이익 확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모든 분기가 적자였던 만큼 2023년 실적은 좋아질 수 밖에 없다.

풍력 베어링에 특화된 기업, 하반기 고객사 다변화도 예상

글로벌 베어링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의 생산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풍력보다는 자동차 향 베어링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다. 최근 미국 내에서의 친환경 산업 확대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풍력용 베어링 시장도 커지고 있다(북미 베어링 시장 2021년 215억 달러 → 2030년 408억 달러). 특히 베어링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풍력 터빈에서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품 중 하나로 기술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씨에스베어링은 글로벌 터빈사들과의 오랜 업무경험을 기반으로 기술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GE 외 신규 고객사들로의 신규 수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000원 유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4,000원을 유지한다. 2023년 실적은 매출액 1,292억원(+163.6% YoY)과 영업이익 83억원(흑자 전환)을 전망하며 2024년은 다변화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매출액 2,280억원(+76.5% YoY)과 영업이익 230억원(+178.5% YoY)을 예상한다. 이미 1분기 흑자전환을 통해 실적 개선을 보여주었으며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높여도 좋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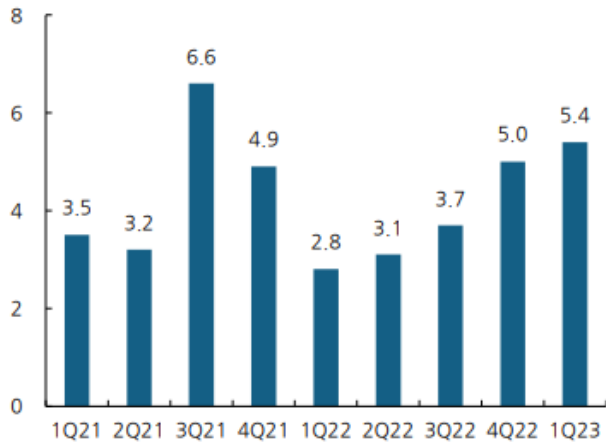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04	96	49	129	228
영업이익	10	0	-9	8	23
영업이익률(%)	9.2	0.5	-18.0	6.4	10.1
세전이익	6	0	-19	7	2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	-1	-17	6	17
EPS(원)	276	-55	-644	213	625
증감률(%)	-7.5	적전	적지	흑전	192.8
ROE(%)	11.8	-2.1	-24.3	6.2	15.7
PER (배)	56.9	-154.3	-12.6	53.2	18.2
PBR (배)	2.9	1.5	2.5	3.1	2.6
EV/EBITDA (배)	28.2	49.6	-53.7	25.4	11.3

자료: 씨에스베어링,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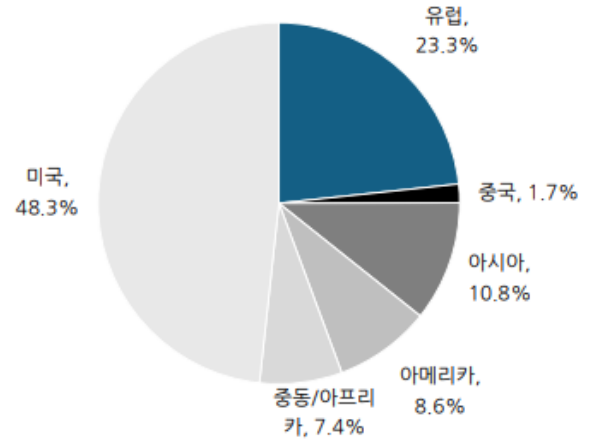
그림1 GE 분기별 터빈 수주금액

(십억 달러)



자료: G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GE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G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2년 기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생산 효율화로 거듭나기
[\[출처\] IBK투자증권 이상현 애널리스트](#)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7% 하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23년 1분기 영업실적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7% 하회했다. 1분기 매출액 2조 1,041억원 (+17.5% yoy), 영업이익 1,909억원(+51.5% yoy), 영업이익률 9.1%(+2.1%p yoy)로 전년동기비로는 물량증가, 판가인상, 물류비 부담완화 등으로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증감요인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물량(+6%), 판가(+11%), 환율(+1%) 등의 효과가 있었다. OE 판매량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급난 완화로 전년동기비 개선되었고, RE 판매량은 시장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판매량은 전년동기비 증가했다. 판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해온 효과와 더불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3~4%)과 한국(2~3%)에서 가격 인상이 반영되었다. 영업이익 증가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선임 등 물류비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류비는 과거 매출액대비 통상 7%대 수준에서 선임 상승으로 12%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8~9%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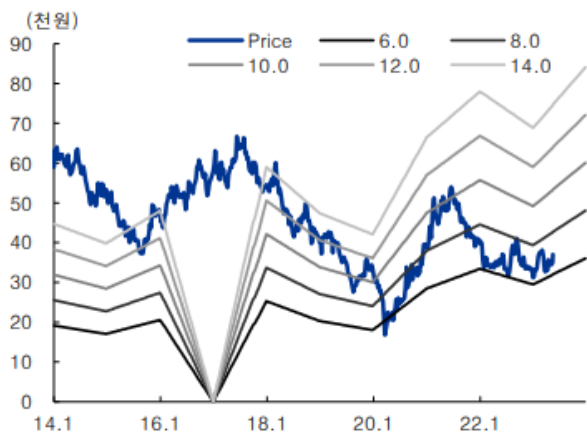
대전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차질 영향 최소화 노력 중

대전공장 화재(3/12) 관련 재해손실이 1분기에 영업외로 약 734억원 (손실관련 장부가액 기준) 반영되었다. 2분기에도 민원관련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일부가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해손실은 화재보험 가액 3천억원 내에서 추후 보상될 예정이다. 대전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 후 대전공장 몰드 이관(인원 포함)으로 금산공장에서 대응이 가능했고, 그외 인도네시아, 중국, 헝가리 공장 등의 생산 증대를 통해 생산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2~3년 서플라이체인 이슈로 다원화를 진행해 왔던 부분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십억원,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7,141	8,394	8,863	9,428	9,907
영업이익	642	706	834	915	993
세전이익	713	858	766	930	1,032
지배주주순이익	588	690	609	744	826
EPS(원)	4,748	5,572	4,916	6,008	6,665
증가율(%)	58.0	17.4	-11.8	22.2	10.9
영업이익률(%)	9.0	8.4	9.4	9.7	10.0
순이익률(%)	8.3	8.4	6.9	7.9	8.3
ROE(%)	7.6	8.1	6.7	7.7	8.0
PER	8.4	5.6	7.1	5.8	5.2
PBR	0.6	0.4	0.5	0.4	0.4
EV/EBITDA	4.2	3.3	2.8	2.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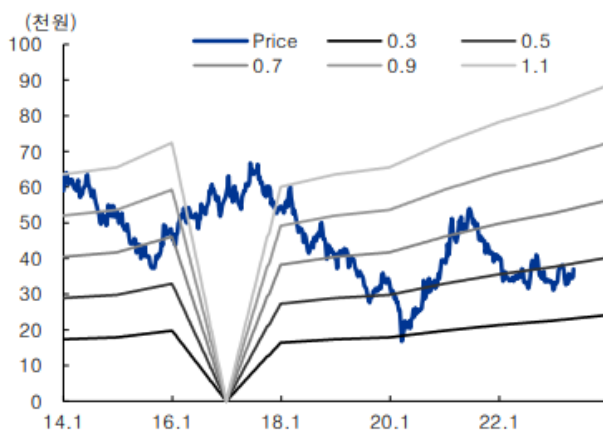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Forward PER Band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그림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Forward PBR Band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서부T&D

펀더멘탈 급증을 암시하는 1분기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1분기 실적 기대치 충족

서부T&D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56억 원(전년동기대비 +32.8%), 영업이익 73억 원(전년동기대비 +103.3%)을 달성하였다. 당사에서는 동사의 1분기 실적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1) 쇼핑몰(스퀘어원)의 경우 트래픽 증가에 따라 판매수수료 증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였고, 2) 호텔사업부 실적 성장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드래곤시티 호텔 매출액은 237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을 기록하였다.

2분기 큰 폭의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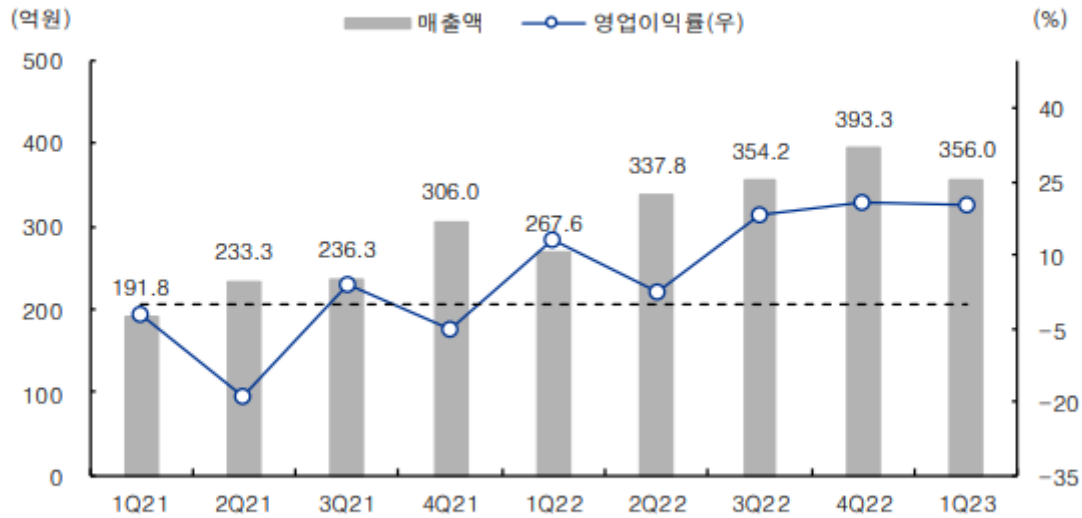
동사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요인은 드래곤시티 호텔 운영수익이다. 1분기는 통상적으로 비수기에 해당되며, 동사의 객실 수 수준을 감안하면 BEP를 넘어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는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1) 2분기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해당되고, 2) 외국인 투숙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3) ADR 상승에 따라 RePAR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4)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이며, 5) MICE 및 블락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영업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에서는 2분기 호텔사업부 매출액은 약 300억 원(전년동기대비 +47.8%), 영업이익은 약 70~80억 원(흑자전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위:십억원,배)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0	0	85	97	135
영업이익	0	0	-23	-5	19
세전이익	0	0	-36	36	30
지배주주순이익	0	0	-35	40	17
EPS(원)	0	0	-563	654	271
증가율(%)	0.0	0.0	0.0	-216.0	-58.5
영업이익률(%)	0	0	-27.1	-5.2	14.1
순이익률(%)	0	0	-41.2	40.2	18.5
ROE(%)	0.0	0.0	-5.5	6.2	2.5
PER	0.0	0.0	-12.9	13.4	28.5
PBR	0.0	0.0	0.7	0.8	0.7
EV/EBITDA	0.0	0.0	-350.4	123.6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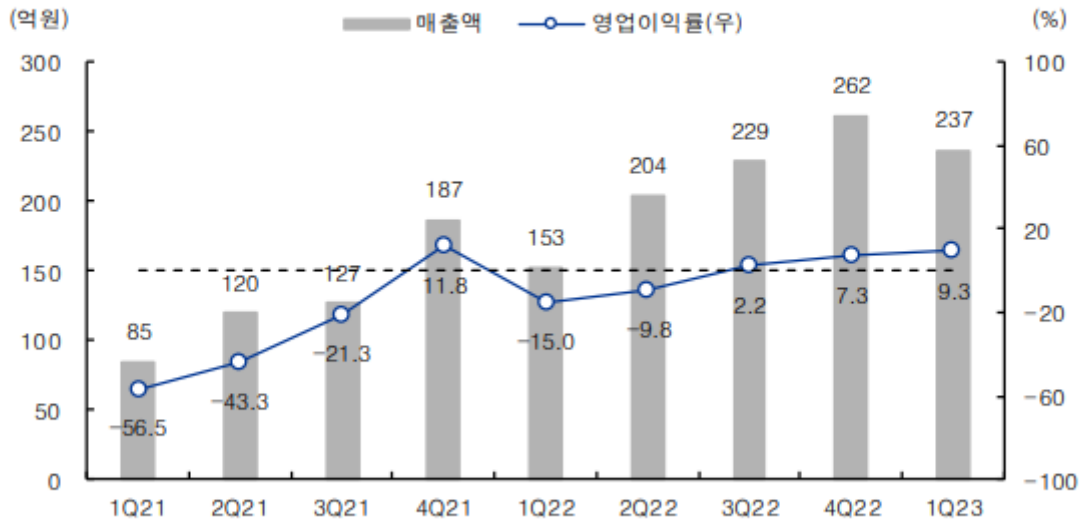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주: 2020년부터 연결기준 표기

그림 1. 서부T&D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자료: 서부T&D, IBK투자증권

그림 2. 서부T&D 호텔사업부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IBK투자증권



엘앤씨바이오

1Q23 Re : 탑라인 성장 지속, 메가카티 출시 임박

[\[출처\] 하나증권 김규상 애널리스트](#)

1분기 매출액 148억원(YoY 34.5%)

엘앤씨바이오는 1분기 매출액 148억원(YoY 34.5%), 영업이익 21억원(YoY 4.5%)을 시현했다. 매출액은 2018년 말 상장 후 1Q19부터 1Q23까지 17개 분기 모두 YoY 증가를 시현하며 2019~2022년 CAGR 25.5%를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1) 메가카티 출시를 위한 사전 마케팅 비용 집행, 2) R&D 및 영업 인력 채용 증가, 3) 코로나19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영향 지속 등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

메가카티 SCI급 논문 승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선정 임박

올해 기대 신제품인 무릎연골 결손 치료 의료기기 메가카티가 SCI급 논문에 승인을 받아 발간을 앞두고 있다. 엘앤씨바이오는 해당 논문을 기반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신청 및 각종 학회에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에 최종 선정된다면 유예 기간 동안 판매가 가능하여 메가카티 관련 매출이 즉시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메가카티

메가카티의 최대 장점은 임상시험에서 1) 50~65세의 고연령, 2) ICRS Grade 3~4, 3) 4~10cm² 이상의 큰 병변 발생 환자들에게서도 확연한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이다. 기대효과로는 1) 주로 50세 미만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세천공술의 대상 연령 확대, 2) 치료 방법이 적었던 Grade 3 환자로 확대, 3) 큰 병변부위까지 확대가 가능하여 전반적인 대상 환자군이 확대될 전망이다. 퇴행성관절염 환자 중 50세 미만 환자는 4%에 불과하며, 50~60대 환자가 4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연령에서 관련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높다. 최후의 수단인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수술시기를 늦춰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간 Grade의 고령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메가카티는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임상시험 디자인부터 철저히 대비를 해왔으며, 각종 학회와 영업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장 출시 후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2023년 매출액 676억원, 영업이익 136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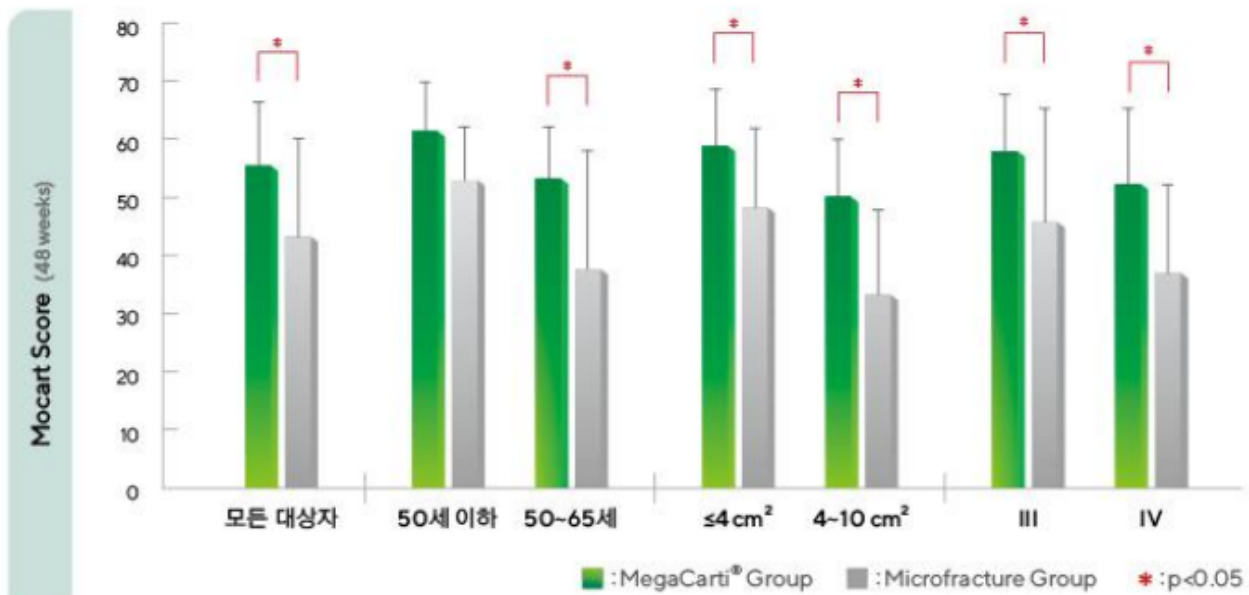
엘앤씨바이오의 2023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676억원(YoY 28.5%), 영업이익 136억원(YoY 41.7%)으로 전망한다. 메가덤의 견조한 성장과 수출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메가카티 매출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29	33	46	53
영업이익	9	7	13	9
세전이익	10	13	17	5
순이익	7	11	14	6
EPS	331	492	618	200
증감율	19.9	48.6	25.6	(67.6)
PER	25.8	70.1	59.2	115.5
PBR	3.2	12.2	9.1	5.0
EV/EBITDA	16.1	83.7	51.4	43.1
ROE	12.5	18.7	16.2	4.6
BPS	2,708	2,839	4,028	4,598
DPS	100	50	50	50

도표 5. 메가카티 MRI 평가



자료: 엘앤씨바이오, 하나금융투자



컴투스

2분기 흑자 전환 기대

[\[출처\]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부진한 미디어/콘텐츠 사업

컴투스에 대한 투자 의견 Hold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80,000원에서 72,000원으로 하향. 서머너즈워:크로니클의 양호한 성과로 2분기부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기대되나, 여전히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의 적자가 부담스러운 상황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노니아:크로노브레이크'는 사전예약 가입자 140만을 돌파하였는데, 최근 다수의 MMORPG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중요할 전망이다. 관련 기대감은 상승할 수 있을 것
동사는 향후 3개년간 주주환원정책으로 직전 3개년 별도 연평균 영업현금흐름의 33%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50% 소각하기로 결정. 2023년은 기지급한 주당배당금 1,300원(273억원)을 제외하고 332억원(특별분기배당 152억원, 자사주180억원, 소각 1%)을 추가 환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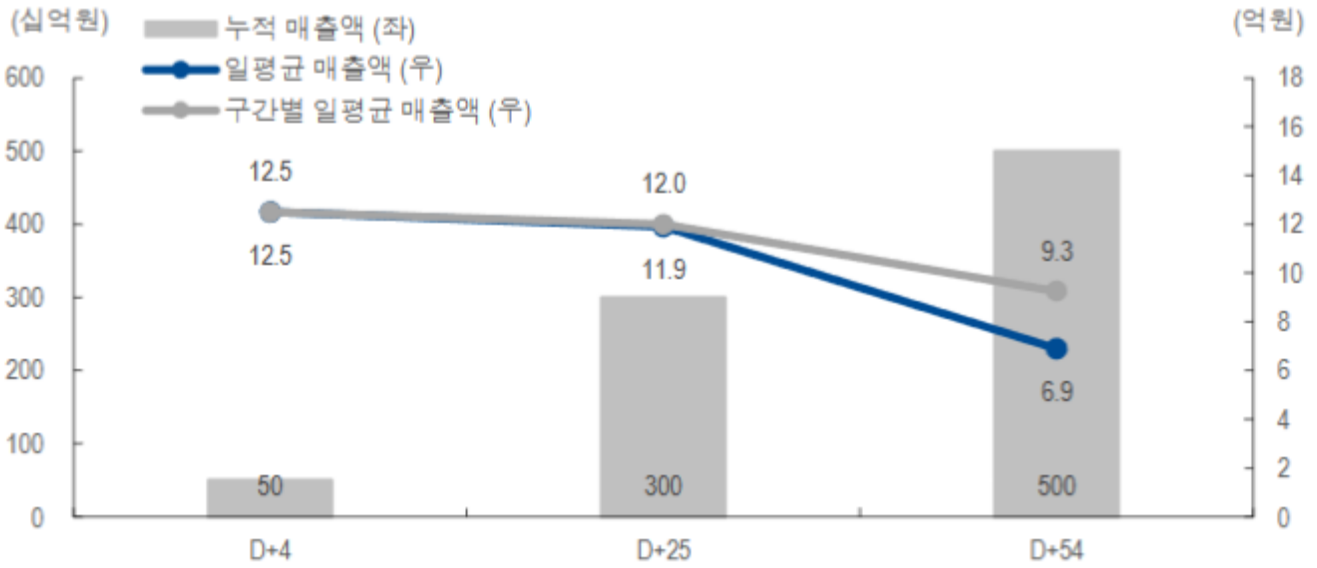
부진한 1분기 실적 기록

컴투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927억원(+44.5% y-y, -5.7% q-q), 영업이익 -148억원(적자지속)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78억원 및 시장 컨센서스 -83억원을 하회. 서머너즈워:크로니클의 초기 성과가 양호하였으나, 매출이 20일 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미디어/콘텐츠 사업의 적자 폭이 심화되었기 때문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717.1	966.6	1,038	1,082
증감률	28.4	34.8	7.4	4.2
영업이익	-16.7	29.1	48.1	67.5
증감률	-	-274.3	65.3	40.3
131.7				
영업이익률	-2.3	3.0	4.6	6.2
(지배지분)순이익	33.4	87.3	61.8	76.8
EPS	2,593	6,785	4,803	5,967
증감률	-74.2	161.7	-29.2	24.2
PER	23.0	9.5	13.4	10.8
PBR	0.7	0.5	0.5	0.5
EV/EBITDA	51.0	8.4	6.2	4.6
ROE	2.9	6.5	4.0	4.8
부채비율	43.2	38.9	39.4	38.9
순차입금	-97.3	-440.8	-478.4	-524.9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구간별 일평균 매출 추이.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이 중요할 것



자료: 컴투스,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코스맥스

국내 견조 + 해외 부진

[\[출처\] 키움증권 조소정 애널리스트](#)

1Q: 국내 성장 + 해외 부진

코스맥스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4,033억원 (+1% YoY), 영업이익은 138억원 (+1% YoY, OPM 3.4%)를 기록,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국내 법인의 견조한 성장과 해외 법인의 부진이 상쇄되었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7억원 (-93% YoY)에 그쳤는데, 외환 이익(28억)과 별도 국내 법인의 이익 증가로 법인세(91억)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코스맥스코리아의 매출액 2,434억 (+19% YoY), 영업이익 130억원(+35% YoY, OPM 5.4%), 당기순이익 227억원 (+119% YoY)을 기록했다. 순수국내와 비중국향 수주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고, 단가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이익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색조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고객사 관련 대손상각비 (34억)이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 (OPM +0.7%p YoY)

중국: 중국지역 매출은 1,224억원 (-18% YoY), 그중 상해는 915억원 (-25% YoY), 광저우는 297억원 (+27% YoY)를 기록했다. 상해 법인은 3월 이후 매출 회복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연초의 부진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광저우 법인은 낮은 기저

덕분에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기타: 미국 법인 매출은 271억 (-39% YoY)을 기록했다. 1월을 끝으로 오하이오 공장 가동이 멈췄고, 기존 고객사들의 뉴저지 법인 이전 작업과 공장 인 증은 4월에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법인 매출은 192억원 (+34% YoY), 태국 매출은 51억원 (+82% YoY)을 기록했다. 주요 고객사들의 견조한 오더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11,000원 상향조정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Buy 유지, 목표주가는 111,000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그동안 가장 큰 우려로 작용했던 미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 작업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현지 및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ODM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실적 가시성이 점차 확보되면서 관련 우려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뿐 아니라 중국법인 또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화장품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 목표주가를 상향조정 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591.5	1,600.1	1,793.2	1,966.4
영업이익	122.6	53.1	115.1	180.2
EBITDA	174.4	111.9	172.3	237.5
세전이익	78.3	6.2	91.0	153.9
순이익	34.3	-16.4	64.1	120.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74.4	20.8	80.8	73.9
EPS(원)	6,880	1,837	7,119	6,509
증감률(% YoY)	230.5	-73.3	287.6	-8.6
PER(배)	12.7	40.3	11.6	12.7
PBR(배)	1.77	1.45	1.42	1.27
EV/EBITDA(배)	7.3	10.1	7.3	5.6
영업이익률(%)	7.7	3.3	6.4	9.2
ROE(%)	16.5	3.6	13.0	10.5
순차입금비율(%)	81.0	95.1	92.7	76.9

